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1994년도 표어 ◎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

◎ 생활지침 ◎

- 1. 거듭난 사람
- 2. 성숙한 신자
- 3.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 517-7651 ~ 5    팩스 / 512-1225

##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하여

### 연말 행사 일정 확정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사도적 교회를 이루자는 표어 아래 새로운 각오로 출발한 1994년도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 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를 때가 되었다.

이제 남은 행사로는 현재 진행 중인 비전 2000운동과 추수감사절 및 교회 창립 3주년 기념일, 성탄절 행사 등을 비롯하여 내년에 수고할 직분자 임명식과 각 부서들의 총회가 있다.

특히 교회 창립 3주년을 맞는 11월 27일에는 I, II, III부 예배 시에는 성찬식, 찬양 예배 시에는 집사 안수식, 권사 취임식도 있을 예정이다.

12월 중에 있을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등 직분자 임명과 권사회 총회, 교구총회, 남선교회·여전도회·실업인 선교회 총회, 교회학교 및 찬양대 총회를 제외한 남은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다.

행사명	일시 및 담당부서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 3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11월 13일(주일) 찬양예배 시 · 찬양 / 교회학교 학생과 교사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 3주년 기념 감사찬양예배, 비전2000운동송전 감사예배	11월 20일(주일) 찬양예배 시 · 찬양 / 할렐루야찬양대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 3주년 기념 감사예배	11월 27일(주일) I, II, III부 예배 시 · 성찬예식
집사 안수 및 권사 취임	11월 27일(주일) 찬양예배 시
'94 성탄 축하 음악예배	12월 18일(주일) 찬양예배 시 · 찬양 / 가브리엘 찬양대
'94 성탄 축하의 밤	12월 24일(토) 오후 7시부터 서초구민회관
'94 성탄절 새벽예배	12월 25일(주일) 새벽 5시
'94 성탄 축하 예배	12월 25일(주일) I, II, III부 예배 시
'94 성탄 축하 찬양예배	12월 25일(주일) 찬양예배 시

■ 비전 2000운동 본부에서 드리는 글

10월 30일은 종교개혁주일.  
전가족이 함께 새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전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영광스러운 시간은 좀처럼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비전 2000운동에 즈음하여 10월 30일은 『전가족 만남의 주일』로 정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의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가족, 교회에 가끔씩만 출석하는 가족, 교회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던 가족까지도, 『전가족 만남의 주일』인 다음 주일에는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도록 합시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 비전 2000운동이 점차 활기를 띠며 진행되고 있다. 지난 주일(16일)에는 예배를 마친 후 전교인이 교구별로 나누어 교회 부근으로 노방 전도를 나갔다.

창세기 강해



#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16장 1절 ~ 16절)

이종운 목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라고 해서 모두 위대한 일생을 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무에게도 주목이 될 수 없는 비천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몸종이었던 하갈에게 "내 남편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으라"고 부탁합니다. 하갈이 잉태하자 사라는 그녀를 학대했으니 결국 이 여인은 처음부터 눈물로 시작해서 슬픈 인생을 걸어야 했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침내 하갈은 사라의 구박 때문에 멀리 광야로 도망하는데 이 세상의 아무도 그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녀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이 여인을 부르십니다. 하갈은 이에 감격하며 그의 신앙고백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리를 '브엘라헤로이(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라 부릅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 초라해지고 인간의 시선을 따라 자기를 비하시켜 마치 하갈처럼 보잘것 없는 인생으로 스스로를 취급하는 경우는 없는지요?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처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 1.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갈은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고 노예 신세가 되어서 주인의 명령을 따랐을 뿐인데 구박을 받고 억울하고 비천하게 쫓겨나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으로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창세기 16장 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자했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사랑도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운 자라고 칭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겼던 위대한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손을 얻는 일이란 매우 중요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고 여러 식은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이 부끄러운 사건의 발단은 그의 아내 사라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2절) 하나

님과 의논해야 할 아브라함 아내의 말만 따르다가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가는 길이 험난하고 문제가 난해하다고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하면 그것이 불신앙이요, 넘어짐을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사라, 하갈이 모두 실수를 범합니다. 하갈의 경우, 잉태한 것을 안 후에 주인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을 기회도 있었는데 교만하여져서 사라를 멸시함으로 그 기회를 박탈 당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사라는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하며 비난을 퍼부으며 아브라함이 받아야 할 수모를 자신이 받았다고 핑계하는데(5-6절)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의 죄를 범하면 원망과 핑계가 따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대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 2. 여호와와의 사자

"여호와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결 곧 술길 샘물 견에서 그를 만나"(7절)라고 하는 구절에서 '여호와와의 사자'란 하나님의 입장을 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종된 입장을 취하기도 하는 분으로(왕하 19:35, 왕상 19:7, 민 22:22, 출 14:19, 창 16:10, 13)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다른 분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와의 사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하갈에게 관심을 쏟으시며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들이 끈고한 중에 울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으며 억울함에 처할 때에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 중심에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 3. 기대지 못한 축복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8절)고 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갈 길을 보여 주십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9절)고 말씀하시고 "네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하겠다"(10절)고 축복

하시니 하갈은 자신의 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음을 인해 위안을 얻고 감격합니다. 몸종이었던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서 주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새우신 권세에 도전한 것이나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고 감찰하시어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하갈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갈은 자신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는 불행해 했습니다. 그러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감격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말하는 것,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 순례자 컬럼 ✦

## 제자리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우화 한토막을 소개한다.

산중의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찾아가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간청했다. 감람나무가 가로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이동하리요"하면서 거절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같은 청을 받았으나 자기 본분을 버리고 경거망동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절했다(사사기 9장).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자리가 있다. 머리카락은 머리 위에 붙어 있을 때 제 값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맹장 속에 자리를 잡으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된다. 제 자리를 이탈하고 남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이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기도하자.

'모든 만물은 그 쓰임에 합당하게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따라 제 자리를 찾아 오늘도 수고의 땀을 흘리도록 하자.

목회자세미나 현장 스케치

10월 16일(월) 제2교시 강의 요약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과 그의 진리론

강사 / 이규호 박사(전 교육부 장관)

들어가는 말

진리라는 개념이 우리의 일상 생활과 학문들의 연구에서도 멀어져가고 있다.

그러나 진리 탐구와 인간의 자기 실현이 불가분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와 생활에서의 진리 개념의 소외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I. 두개의 진리관

철학의 역사는 두가지 서로 다른 진리관, 즉 인식론적 진리와 존재론적 진리를 논해왔다. 인식론적 진리란 회랍적 전통에 따르는 것으로 진술이 사실과 합치될 경우를 말한다. 마치 거울이 사물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에 비유된다. 반면 존재론적 진리란 히브리 전통에 따른 것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존재, 즉 참다운 인간이 곧 진리임을 말하며 이는 바위에 비유되어 그 자체가 믿음직하고 가치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두 진리관에 대한 이해는 법정에서의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의 진리란 존재론적인 진리를 말한 것이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되묻는 빌라도는 회랍적 전통에 의한 진리관, 즉 인식론적 진리관을 소유했던 것이다.

하이데거는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을 통해 현대철학에서 망각된 존재론적인 진리로 우리의 관심을 유도한다. 그리고 인식의 진리와 존재의 진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을 편다.

II. 진리는 탐구해야 하는 것

‘탐구’란 숨있는 것을 캐내어 찾는 것을 의미한다. 발견을 위한 고통과 희생이 동반되는 것이며 삶의 자세의 전환이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다. 자기 절제와 사회적 소외에 대해 저항할만한 강한 용기도 필요한 것이

며 스스로의 기대나 선입관을 증명해 보이려는 자신 내부의 욕구에서도 자유로워야 한다. 하이데거는 그의 저서 <진리의 본질에 대하여>에서 우리에게 구원은 일회적으로 주어지지만 성화애의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것처럼 진리는 찾을 수 있으나 소유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진리 탐구를 위해서 실존적인 결단과 윤리적인 의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III. 진리는 대화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인간의 해명성과 관련되는 것

진리는 단독자의 독백적인 사유에서보다 공동의 대화에서 스스로를 드러낸다. 따라서 진리를 확신허 해주는 대화는 ‘진리의 산모’라고 일컬어진다.

하이데거는 진리라는 말의 뿌리를 설명하기 위해 회랍어aletheia의 어원인 ‘비은폐성’을 지적한다. 이는 원래의 존재의 상태로 회복하는 일, 즉 일상적인 은폐성을 탈피하는 전환의 행동으로서, 기독교에서는 이를 회개라고 한다. 하이데거는 비은폐성, 즉 진리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간의 해명성이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하면서 진리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주체로서의 인간 존재의 열림과 밝음(해명성)이 원초적인 진리 현상이고, 사물의 비은폐성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해명된 인간만이 사물의 진리를 해명한다”. 진실된 인간만이 참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러한 대화를 통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맺는 말

지금 우리 사회의 풍조는 진리 탐구를 단순한 지식의 전달로 왜곡되어 생각하고 있다. 이제, 진리개념의 복원과 성찰이 촉구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진실한 사람됨’이 중대한 전제로 부상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비전 2000 운동과 나

비전 2000운동 기간이라 주일예배 후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난생 처음 노방전도를 나가게 되었다. 전도지를 들고 맨 처음 들어간 곳은 어느 편의점이었는데 한 아저씨가 물건을 고르고 계셨다.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다가서서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하며 말을 건넸더니 아저씨는 “그래?”하며 통명스레 대답하고는 돌아서서 가버리셨다. 순간, 기운이 쭉 빠지면서 믿는 분이 좀 상냥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을텐데 저렇게 밖에 할 수 없을까? 내 마음에는 누가 전도지를 건네 준다면 같이 믿는 사람으로서 수고한다는 격려를 꼭 해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버스 정류소를 거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지를 건네주며 예수 믿으라고 권했지만 감사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우정하 (집사,)

10월 16일의 일기  
날씨 / 비온 후 맑음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소서”  
김예미 (중등부)  
하다는 표시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할당받은 전도지를 다 뿌렸다고 신나게 인사를 하고 해

전도사례를 듣다 보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과장하는 수가 있다. 나도 그런 유희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사실대로 써보려고 한다. 어느 날 우리 부부가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여 기조하던 중, 집사님을 통해 Y씨에 대한 기도가 나왔다. 그것이 하루 이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어서 나는 그에게 설교테이프를 여러번 보내

어지는 친구들을 보낸 후 집으로 오는 길에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 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교회가차고 했더니 한 친구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함부로 하여 마음이 상했던 일이 있다. 왜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게 되었을까? 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도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까? 우리가 씨를 뿌리면 예수님께서 거둔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 날 뿌린 씨앗들도 열매가 맺힐 것인가? “주님! 제가 아무 것도 모르는 죄인이었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문을 여시사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들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들도 거두어 주세요.”

고 직접 만나 깊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했지만 교제가 깊어지면서 “우리 교회에 같이 한 번 가볼래요?”라고 권하니 선뜻 “가고싶다”고 대답하는 것이다. 정말 놀라웠다. 주님께서 이미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 같았다. 그리고 기뻐하실 것 같았다. (★다음페이지에 계속)

(★앞페이지에서 계속)

Y성도의 남편은 현재 회사에서 예수 전도사로 소문이 나있다. 성경 말씀을 정독하면서 직장 복음화에 열심을 내는 등, 성숙한 신자로서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

한가지 더 감격스러운 일이 있다. 지난 주일, Y성도의 여동생이 처음으로 우리교회에 왔다.

예배시간, '믿음으로'라는 설교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기도시간에 믿지 않는 친척과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눈물의 기도가 터져나왔다고 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신다는 말씀을 체험한 순간이었으리라. 우리 주님도

하셨던가 보다. 오자마자 전도의 뜨거운 열심을 주시니 말이다.

어눌한 나의 지체롭지도 않은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 사람이 주님의 복음을 접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모든 것이 그렇듯이 전도도 기도가 선행되어야함을 깨닫게 된 귀중한 체험이다.

**전**도를 하려고 말을 건네다 보면 '교회가 답배가게보다도 더 많은데 세상이 왜 이 모양이 풀이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공격하는 이들을 더러 보게 된다. 얼굴이 붉어오며 속상해지는 것은 나와 관련 없는 일이라면 맛장 구나치며 해소해 보겠지만 교회가 많은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미약한 것도 엄연한 사실이어서 할 말을 잃고 보면 대상도 확실하지 않은 부화가 속에서 막 치밀어 올라오는 것이다.

무엇을 탓하라? 내 자신은 어디서 있는가? 주님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

참회록

##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김 무 명 (2교구 역삼 1다락방)

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9) 말씀하셨건 만 이 엄청난고 특별한 은총 앞에 배은망덕함과 배신의 죄를 수없이 자행치 않았던가? 무심함,

무정함, 무감각, 무능함으로 굳어져버려 내 영혼 속에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라고는 발견하기 어렵다.

인간이란 본래 심히 굳은 나무와도 같아서 그것을 곧바로 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리 저리 굽어져 있는 내 모습이 자동적으로 곧바르게 되는 것도 아니다.

사랑에 있어서의 구부러짐, 절제의 구부러짐, 경건의 구부러짐을 바로 펴도록 하기 위해서 겸손히 기도하며, 끊임없는 훈련과 경건의 연습에 좀 더 힘써야 하리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쓰임받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기 위해...

### 구제위원회

## 『경찰의 날』에 파출소 위문

구제위원회(위원장: 정병무 장로)에서는 경찰의 날이었던 지난 21일(금)에 우리 교회 인근 파출소를 찾아 경찰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복음과 함께 작은 선물을 전달했다.

## 미화원 초청 위로잔치

오는 25일(수)에

하나 제1여전도회(회장: 박순옥 권사)에서는 오는 25일(수)에 서초구 일대의 미화원을 초청하여 점심을 대접하며 위로회를 가질 예정이다.

## 서울주간기도

###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1. 우리교회 각 부서가 조화와 연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2. 농어촌 교회들을 위하여
3. 태신자를 위하여

### 비전 2000기도제목

- 복음 전할 기쁨과 사명을 주옵소서.
- 복음전할 기회와 환경을 허락하옵소서.
- 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열매가 풍성케 하옵소서.
- 북한 땅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될 교회당 건축을 허락하옵소서.
- 한국교회 갱신운동이 복음증거로 확산되게 하옵소서.
- 비전 2000운동으로 다락방마다 부흥되게 하옵소서.

## 봉사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 '95년도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원 모집 -

내년에 각 부서에서 수고할 일꾼들을 찾습니다. 여섯개의 찬양대와 열 두개 교회학교에서는 은사를 따라 봉사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지원서류는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청 및 문의는 각부 찬양대 대장, 교회학교 부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 ■ 목회사 동정 ■

이종윤 목사는 오는 28일(금)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임 옥 목사)가 주최하는 「한국 사회의 도덕적 위기와 교회의 책임」이라는 주제의 교계 지도자 100인초청세미나에서 주제강연을 한다. 이 세미나는 기독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다.

###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T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 극동방송(HLAI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50분  
 아세아방송(HLAX 1566KHz) 「주일설교」 매 주일 오전 8시 ~ 8시 30분  
 「주일설교 재방송」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10분 ~ 4시 50분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 기도회	오후 9시
새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위치

